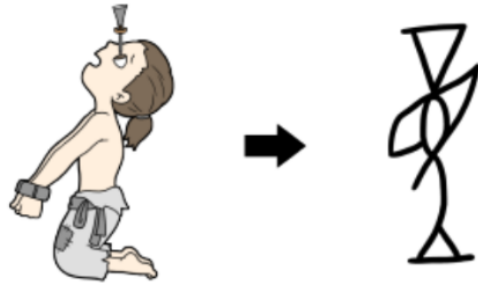


6(2)
-
21

회의문자 ①



童

아이 동

童자는 '아이'나 '노복', '눈동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童자는 立(설 립)자와 里(마을 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서의 童자는 辛(매울 신)자와 目(눈 목)자, 東(동녘 동)자가 결합한 𠄎 모습이었다. 여기서 東자는 발음요소이기 때문에 辛자와 目자만을 놓고 본다면 이것은 노예의 눈을 찌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노예의 한 쪽 눈을 멀게 하여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童자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노예'를 뜻했었다. 하지만 후에 '아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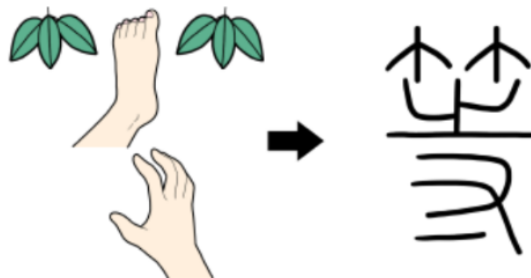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6(2)
-
22

회의문자 ①



等

무리/
등급
등

等자는 '등급'이나 '무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等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寺(절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寺자는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기 이전에는 국가의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을 뜻했었다. 관청에서는 문서 내용에 따라 죽간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는데, 等자는 문서를 종류에 따라 분류했다는 것을 뜻했었다. 이러한 의미가 확대되어 지금은 '등급'이나 '계급'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소전

해서

6(2)
-
23

상형문자 ㉠



樂

즐길 락/
풍류 락/
노래 악/
좋아할
요/

樂자는 '음악'이나 '즐겁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樂자는 본래 악기의 일종을 뜻했던 글자였다. 갑골문에 처음 등장한 樂자를 보면 木(나무 목)자에 絲(실 사)자가 결합한 𪛗 모습이였다. 이것은 거문고처럼 실을 튕겨 소리를 내는 악기와 줄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白(흰 백)자가 더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줄을 튕길 때 사용하는 피크를 뜻하기 위해서였다. 또 음악을 들으면 즐거우므로 '즐겁다'라는 뜻도 파생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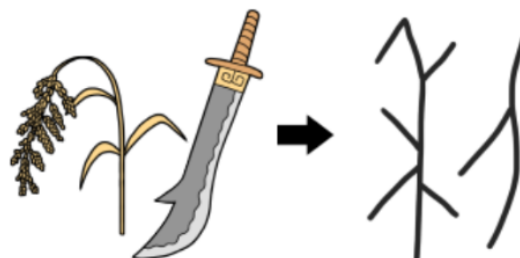
소전



해서

6(2)
-
24

회의문자 ㉡



利

이할/
이로울
리

利자는 '이롭다'나 '유익하다', '날카롭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利자는 禾(벼 화)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벼와 칼을 함께 그린 것이니 利자는 벼를 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利자는 본래 칼이 벼를 벨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였다. 利자에 아직도 '날카롭다'나 '예리(銳利)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利자는 후에 '이익'이나 '이롭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는데, 벼를 베어 추수하는 것은 농부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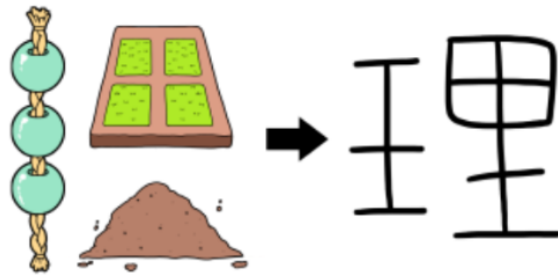
소전



해서

6(2)
-
25

형성문자 ①



理

다스릴
리

理자는 '다스리다'나 '이치'를 뜻하는 글자이다. 理자는 玉(구슬 옥)자와 里(마을 리)가 결합한 모습이다. 里자는 '마을'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理자는 본래 옥에 새겨 넣은 무늬를 뜻했었다. 단단한 옥을 깎아 무늬를 새겨 넣는 작업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理자는 후에 간혹 실수로 구멍 낸 곳을 메운다는 의미에서 '메우다'나 '수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일을)처리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理

소전

理

해서

6(2)
-
26

회의문자 ①



明

밝을 명

明자는 '밝다'나 '나타나다', '명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明자는 日(날 일)자와 月(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낮을 밝히는 태양(日)과 밤을 밝히는 달(月)을 함께 그린 것이니 글자생성의 의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밝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사물의 실체가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明자는 '밝다'라는 뜻 외에도 '명료하게 드러나다'나 '하얗다', '똑똑하다'와 같은 뜻까지 파생되어 있다.

明

갑골문

明

금문

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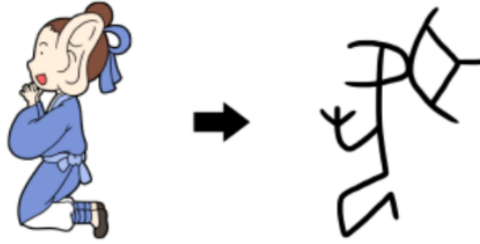
소전

明

해서

6(2)
-
27

회의문자 ①



聞

들을 문

聞자는 '듣다'나 '들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聞자는 門(문 문)자와 耳(귀 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聞자를 보면 사람의 귀가 크게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문 밖에서 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에는 어둑해진 저녁에서야 결혼할 신랑이 신부의 집에 당도했다고 한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혼인하다'라는 뜻으로 썼었다. 후에 이러한 모습이 바뀌면서 사람은 女(여자 여)자와 昏(어두울 혼)자가 결합한 婚(혼인할 혼)자가 되었고 사람의 귀는 耳(귀 이)자에 門자를 더한 聞자로 분리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聞자는 문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에서 '듣다'나 '소식'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6(2)
-
28

회의문자 ①



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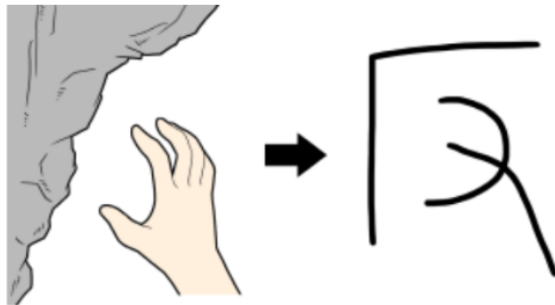
반 반

半자는 '반'이나 '절반',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半자는 牛(소 우)자에 八(여덟 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八자는 숫자 '여덟'이라는 뜻이 있지만, 본래는 무언가를 반으로 가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그러니 半자는 소를 반으로 가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半자가 '가르다'라는 뜻을 가진 다른 글자와 구별되는 것은 정확히 반으로 가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문	소전	해서

6(2)
-
29

회의문자 ①



反

돌이킬/
돌아올
반

反자는 '되돌아오다'나 '뒤집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反자는 厂(기슭 엄)자와 又(또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厂자는 산기슭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추상적인 물건으로 응용되었다. 갑골문에 나온 反자를 보면 손으로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어떠한 물건을 손으로 뒤집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反자는 '뒤집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후에 뜻이 확대되면서 '배반하다'나 '반역하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反

금문

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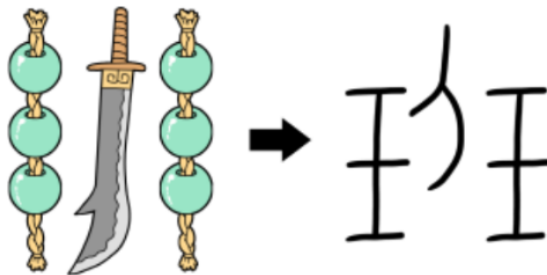
소전

反

해서

6(2)
-
30

회의문자 ①



班

나눌 반

班자는 '나누다'나 '이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班자는 두 개의 옥(玉)과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이것은 칼로 옥을 나누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班자는 珣(쌍옥 각)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칼로 옥을 나눈다는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 차례대로 분배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班자에는 '차례'나 '순서'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班자는 여기에 더해 '자리'를 뜻하기도 했는데, 고려 시대에는 무신과 문신을 무반(武班)과 문반(文班)이라고도 하여 이 둘을 합쳐 양반(兩班)이라 했다.

班

소전

班

해서